초등학생들의 4박 5일 영어마을 체험: 실체 및 태도의 변화

이 병 민
(서울대학교)

Lee, Byung-Min. (20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nights-and-five-days experience at an English villag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3*, 136-163.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nights-and-five-days experience at an English village in Seoul, focusing on what English learning experiences they had and what kind of changes had been made in their attitudes towards learning English. Pre- and post-survey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ir learning experiences in the village and the changes in their attitudes toward learning English. About 350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e- and post-surveys and additional ten students also participated in an interview with the researcher to draw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 English villag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samples t-tests were conducted to answer the main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despite the short term of residence at the English village, the students seemed to have had relatively active engagement in learning both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but not as much in lear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Also, although the village could possibly provide students with rich opportunities to have an active engagement and interaction with peers and English speaking teachers, it seemed that there existed some limitations in having such experienc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lassrooms. Finally, students showed some changes in their attitudes or strategies toward learning English after the short term of residence, saying that they wanted to have more diverse engagement with English, such 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foreigners on the Internet', 'keeping a journal in English,' 'having a conversation in English with other peers,' and so on.

Key Words: English villag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tivation, attitudes, activities and interaction

Ⅰ. 들어가는 말

영어마을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특징, 프로그램 구성, 원어민 강사의 역할, 목적등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 있으며 그 효과도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영어마을의 역할이나 효과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어

마을은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유지되었다.

한편, 이론적인 측면에서 영어마을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 환경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보다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 환경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위적인 교실 영어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영어교육이 갖고 있는 질적인 한계를 보완하면서 영어마을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부족한 영어 학습 시간을 보완해줄 수 있다. 비록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절대 시간만 계산하면 약 40시간 정도나 된다. 이러한 집중적인 영어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노출 시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다(이병민, 2003; Stern, 1983). 학교 교실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영어 학습시간에 비추어볼 때, 집중적인 영어교육 환경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노출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40-50시간의 노출은 학교 영어 수업시간과 비교하면 거의 일 년 이상 동안 노출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셋째, 영어마을은 학생들이 배우고 쌓아온 그동안의 잠재된 영어능력을 표출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로 듣기나 읽기를 통해서 영어에 노출된다. 영어권 국가의 경험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잠재된 자신의 영어 지식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영어 입력(input)의 기회뿐만 아니라,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 산출(output)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영어마을은 이 점에서 학생들의 잠재된 영어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

영어마을의 역할이나 효과 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권민지, 2006; 이병민, 2009; 전용준, 2007). 현황 연구를 비롯해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서 영어마을의 역할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마을이 학교 영어교육이나 영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영어마을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고 학생들은 짧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어마을에서 일어나는 영어체험의 모습과 학생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영어마을 4박5일 체험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들은 영어마을에서 영어와 관련하여 어떤 체험을 하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들은 4박5일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조사 방법 및 절차

서울에 소재한 영어마을 4박5일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어떤 영어 체험을 했으며,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영어마을 체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영어마을 입소 첫날(2009년 7월 13일)과 4박 5일 프로그램을 마친 금요일(2009년 7월 17일) 두 차례 실시되었다.

두 차례 설문조사에 35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사전 설문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태도, 불안, 흥미, 동기 등 학생들이 영어 및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후 설문지는 사전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문항과 함께 영어마을 체험과 관련된 질문이 추가되었다(부록 1과 2를 참조).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서 SPSS를 이용하여 몇 가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적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포함하여, 체험 전과 체험 후 각 문항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과 효과크기(effect size)를 이용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영어마을에 참가한 학생들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09년 7월 16일(목요일) 영어마을에서 이루어졌다. 10명의 학생이 인터뷰에 참여했는데, 이들 학생들은 학년 및 수준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발되었다. 인터뷰는 영어마을의 교육적 효과나 영어마을 체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연구 대상자

영어마을에 입소한 학생들은 학교 단위로 단체 입소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및 남녀 학생별 분포를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영어마을 학교 및 남녀 학생 분포 (단위: 명)

	동구로초	마장초	삼전초	송정초	용두초	창경초	토성초	기타	전체
남	57	55	10	42	7	9	2	5	187
여	90	42	10	49	1	14	2	1	209
총	147	97	20	91	8	23	4	6	396

이들 학생들의 영어 학습 경험이나 배경을 조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영어권 해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대상 396명 중 330명(83.3%)이 해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단기 어학연수 및 6개월 이상의 체류 경험을 가진 학생은 30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이병민(2009)의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영어마을에 참가한 조사대상 학생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통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영어마을 참가 학생들의 해외 경험

기간	빈도수	%
없다	330	83.3
관광	36	9.1
단기어학연수	15	3.8
6개월-1년	9	2.3
1년 이상	6	1.5
총	396	100.0

조사 대상 학생들의 원어민 사교육 경험을 보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약 58%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6개월 이상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사대상 중 원어민 학원 수강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학생은 26.6%였다.

표 3
영어마을 참가 학생들의 원어민 학원 수강 경험

기간	빈도수	%
없다	105	26.6
6개월 미만	61	15.4
6개월-1년	45	11.4
1년이상	184	46.6
총	396	100.0

한편,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다고 답변한 학생은 34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94.5%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부분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 원어민 교사 유무

	빈도수	%
있다	345	94.5
없다	20	5.5
총	365	100.0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급 내에서 자신의 영어 능력을 5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답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자신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한 학생들의 78.1%는 적어도 자신의 영어 능력이 반에서 '보통 이상'은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표 5
학생들의 학급 내에서 영어 능력

	빈도수	%
아주 잘 한다	36	9.1
조금 잘 한다	121	30.7
보통이다	151	38.3
조금 못 한다	63	16.0
아주 못 한다	23	5.8
총	394	100.0

아주 잘 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평균 10명 중 1명은 되었고, 아주 못한다고 답한 학생은 5.8%에 불과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 1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4박5일 동안 영어마을에서 어떤 영어 체험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은 (1) 영어 네 기능 측면에서 영어 체험, (2)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교육의 대비, (3) 영어마을에서 영어 이해 및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

1. 영어마을 체험: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어마을 체험이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 중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학생들의 설문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특성상 영어 문식력(文識力)보다는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영어 듣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85.4%였다. 반면 '전혀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 2.6%에 불과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84.8%였다. 듣기와 달리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223명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해서, 듣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표 6

영어마을 체험이 듣기 향상에 도움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9	2.6	2.6
별로 아니다	11	3.1	5.7
그저 그렇다	31	8.9	14.6
약간 그렇다	92	26.3	40.9
아주 그렇다	207	59.1	100.0
총	350	100.0	

*N = 350

표 7

영어마을 체험이 말하기 향상에 도움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8	2.3	2.3
별로 아니다	11	3.1	5.4
그저 그렇다	34	9.7	15.1
약간 그렇다	74	21.1	36.3
아주 그렇다	207	63.7	100.0

*N=350

4박5일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하기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영어 말하기 평가와 같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이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말하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런 점은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예 #1]

면담자: 거기서(학교) 영어 할 때랑 여기서 할 때랑 뭐가 다른 것 같아?

학생: 여기에서는 conversation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면담자: 학교 수업시간에 외국인 선생님과 영어 안 해?
학생: 하는데요. 근데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한국말을 많이 써요.
면담자: 그럼 여기 들어오면?
학생: 여기 들어오면 한국말 사용하면 red sign 받게 되니까 안 하게 되고. 그냥 쉬운 영어라도 사용하게 돼서 좋아요.

[인터뷰 예 #2]
면담자: 여기하고 학교 영어 수업하고 뭐가 달라?
학생: 우선 발음 자체가 달라요. 학교 영어선생님은 미국 연수 갔다 오신 한국인이신데 좀 콩글리시인데 여기 원어민 선생님들은 본토 발음이라서 듣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면담자: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랑 여기 원어민 선생님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학생: 학교 원어민 선생님은 게임만 하는데 여기는 막 free talking 하고 또 학교 원어민 선생님은 자기 혼자 칠판에 써서 애들 나와서 이것저것 하는데요, 여기는 지적해서 시키시니까 여기가 더 영어 말하기 실력이 더 느는 것 같아요.

평상시 학교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거나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통해 어느 정도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이나 영어학원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영어마을 4박5일 체험을 통해 원어민 강사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 말하기 기회가 있었으며 그런 기회를 개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전 연구를 보면,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말하는 기회는 물론 대화의 질적인 수준을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이병민, 2009).

한편, 영어마을 4박5일 프로그램의 성격상 읽기나 쓰기 활동은 듣기나 말하기에 비해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쓰기 활동은 듣기, 말하기 및 읽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읽기는 약간 낮은 78.8%, 쓰기는 약 72%의 학생들만이 '약간' 또는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학생도 쓰기의 경우 12.6%로 비교적 높았다.

2. 학교 영어교육 vs. 영어마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교육과 영어마을에서의 경험에 대해 어떻

게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영어마을이 학교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영어마을 체험이 학교 영어교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에 약 80%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은 전체 약 1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이 학교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 8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학교 영어수업에 도움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16	4.6	4.6
별도 아니다	21	6.0	10.6
그저 그렇다	34	9.7	20.3
약간 그렇다	54	15.4	35.7
아주 그렇다	225	64.3	100.0

*N=350

'영어마을 수업이 학교 영어수업보다 재미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교 영어수업 보다 영어마을 수업에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표 9

영어마을 수업이 학교 영어수업보다 흥미롭다

	빈도수	유효%	누적 %
전혀 아니다	10	2.8	2.8
별도 아니다	8	2.3	5.1
그저 그렇다	35	10.0	15.1
약간 그렇다	54	15.4	30.5
아주 그렇다	244	69.5	100.0

*N=350

학교 영어교육과 영어마을 체험에 대해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인터뷰 예 #3]

면담자: 학생이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하는 거랑 여기 영어마을에서 하는 영어공부가 무엇이 제일 다른 것 같아?

학생: 여기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이해가 잘 되는데 학교에서는 영어는 그냥 화면을 보여주거나 컴퓨터로 그림을 보여줘서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면담자: 그럼 여기 영어마을 오니까 좋아?
학생: 재미있어요.
면담자: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어?
학생: 수업 거의 끝날 때, 게임하는데 게임하는 것도 재미있고 수업도 재미있어요.
면담자: 근데 수업할 때 영어해야 되잖아, 불편하지 않아?
학생: 불편하진 않고 편하게 해요.

[인터뷰 예 #4]
면담자: 학교에서도 영어 배우고 영어마을도 자주 오고 방과후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그 셋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재미있게 배우는 데가 어디지?
학생: 여기요.
면담자: 왜? 이유를 좀 설명해봐.
학생: 여기는 재미있어요. 학교 영어는 좀 쉽고, 학원에서 하는 건 좀 어렵고 여기에서 배우는 영어는 수준이 딱 맞아요.
면담자: 어디서 영어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 여기요. 원어민 선생님도 자주 만나고 말할 수도 있어요.
면담자: 학교랑 여기서 원어민 선생님 볼 때 차이가 있어?
학생: 네.
면담자: 무슨 차이가 있지?
학생: 여기서는 좀 친구 같아요. 친근감 있어요. 학교에서는 좀 어렵고 부자연스러워요. 여기는 영어마을이니까 좀 자연스러운 거죠. 학교나 학원에서는 영어를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여기 원어민 선생님은 친근감이 있는데 학교의 원어민 선생님은 어렵고 부자연스러워요.

[인터뷰 예 #5]
면담자: 학교랑 여기랑 뭐가 다른 것 같아?
학생: 학교에서는 그냥 “Hello”같은 인사말이나 배우는데 여기서는 전부 자유로운 문장과 제가 뭘 말하고 싶을 때 제가 아는 단어의 뜻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면담자: 아, 그래. 좋은 말이네

[인터뷰 예 #6]
면담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랑 여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학생: 학교에서는 해석을 해주는데 여긴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쉽게 못 해요. 또 학교에서는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들이 한국말로 해석해주셔서 한국말로만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선 영어로만 알아들어야 되니까 영어를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또한 학생 인터뷰 중에서 한 학생은 학교 영어 선생님과 영어마을 선생님에게 질문했을 때 영어마을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인터뷰 예 #7]
면담자: 다른 데서 영어 배우는 거랑 여기서 영어 배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학생: 영어를 듣다가 갑자기 질문이 있어 물어보면 선생님이 나중에 하라고 하시며 수업을 그냥 진행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생각나는 질문을 말하면 바로바로 답해주고 질문을 많이 하라 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 있으면 바로 말할 수가 있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인터뷰 예 #8]
면담자: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여기랑 뭐가 다른 것 같아?
학생: 학교에서는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겨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단어만 말해도 바로 알아들으셔서 더 편히 많이 말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학교나 학원의 영어 수업은 영어공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원어민 강사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장점으로 뽑았다. 학교나 영어학원의 분위기와 달리 영어마을은 학생 대비 원어민 강사의 비율이 높고 학과 수업을 포함한 다른 공간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할 기회가 많다. 이런 자연스럽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는 영어마을이 학교나 학원의 영어수업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영어마을에서 영어 이해 및 사용

영어마을에서 개별 학생들의 영어 이해 및 사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간, 수업외의 자유 시간 및 다른 공간에서 영어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를 잘 알아들었습니까?' 라는 문항에 약 38%의 학생들은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28.6%의 학생들은 '약간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적어도 66.5% 정도의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우 적극적으로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학생 중에서 약 14.2%에 해당되는 49명의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표 10
영어마을 수업 내용 이해도

	빈도수	%
전혀 아니다	19	5.5
별로 아니다	30	8.7
그저 그렇다	67	19.3
약간 그렇다	99	28.6
아주 그렇다	131	37.9

한편, 영어 듣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을 보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가 약 37.5%, '옆의 친구에게 물어보았다'가 약 3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혼자 추측했다'는 답변도 19%로 뒤를 이었다.

표 11
영어마을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경우 사용한 전략

	빈도수	%
옆 친구에게 물어봄	125	36.0
포기	4	1.2
강사에게 물어봄	130	37.5
혼자 추측	66	19.0
친구 따라 하기	22	6.3

학생들의 답변 중에서 교사에게 물어보았다고 답한 학생이 친구에게

물었다는 학생보다 조금 많았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게 직접 묻거나 확인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전체의 62.5%로 강사에게 물었다고 답한 학생의 두 배를 넘었다.

학생들과 원어민 강사 사이에 상호작용이나 의미의 협상(negotiation of meaning)이 일어나서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결을 시도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즉, 학생이 원어민 강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학생의 말을 강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새로운 어휘나 문법을 포함하여 영어를 습득하고,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다(Gass, Mackey, & Ross-Feldman, 2005; Mackey, 1999, 2007; Pica, 2002). 영어마을과 같은 자연스러운 공간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조건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이나 내국인 강사에게 물어보기 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추측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옆의 친구에게 물어봄으로써 상호작용과 의미협상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마을은 학교 교실수업과 달리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 간에 좀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나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원어민 강사와 어느 정도 상호 접촉의 기회를 가졌는지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강사들과 대화할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답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및 '그저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답한 학생은 22.8%를 차지했다. 대다수가 원어민 강사와 대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답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약 1/4 정도는 되었다.

표 12

영어마을 수업 중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 사용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11	3.2	3.2
별로 아니다	17	4.9	8.1
그저 그렇다	51	14.7	22.8
약간 그렇다	110	31.7	54.5
아주 그렇다	158	45.5	100.0

학생 인터뷰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원어민을 접할 수 있지만, 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와 영어로 대화하기가 더 편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예 #9]

면담자: 근데 여기 들어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생: 네!

면담자: 왜? 여기도 한국인데.

학생: 여기 원어민 선생님들은 학교 원어민 선생님들과는 정말 달라요. 학교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어도 잘 하셔서 가끔 만날 때 기본적인 말은 한국어로 해요. 그러나 여기는 거의 다 영어를 쓰시니까 여기서 영어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 영어마을에서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보았다. 비교적 수업시간에 친구와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쉬는 시간에 영어 대화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가?' 라는 질문에 33%가 '약간 그렇다' 혹은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표 13

영어마을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영어 사용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24	6.9	6.9
별로 아니다	42	12.1	19.1
그저 그렇다	78	22.5	41.6
약간 그렇다	100	28.9	70.5
아주 그렇다	102	29.5	100.0

*N=346

표 14

영어마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영어 사용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83	24.0	24.0
별로 아니다	68	19.7	43.6
그저 그렇다	81	23.4	67.1
약간 그렇다	47	13.6	80.6
아주 그렇다	67	19.4	100.0

*N=346

수업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통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사용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수업 외의 시간에는 학생들끼리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물론 학생 대 원어민 강사의 비율이 10:1 정도로 매우 낮거나 학생들 중에 원어민 학생들이나 영어가 능숙한 학생이 섞여있다면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 인터

뷰에서 미국의 영어캠프 경험이 있는 학생이 미국의 영어캠프와 영어마을 체험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어마을은 미국 영어캠프와 시설 및 환경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영어마을에는 한국 학생들끼리만 있다 보니 영어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인터뷰 예 #10]
면담자: 학생은 미국에 캠프도 다녀왔었잖아. 그 쪽하고 여기하고 뭐가 같은 것 같아?
학생: 같은 점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아서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영어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면담자: 다른 점은?
학생: 다른 점은 외국인 아이들이 없어서 영어로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애들끼리 있으면 주로 우리말만 쓰게 되요.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화한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참가 학생 중 41.4%의 학생들이 '약간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표 15
영어마을 수업 시간에 우리말 사용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40	11.6	11.6
별로 아니다	83	24.1	35.7
그저 그렇다	79	22.9	58.6
약간 그렇다	65	18.8	77.4
아주 그렇다	78	22.6	100.0

*N=345

앞의 설문문항 중에서 강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옆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우리말로 옆 친구에게 확인하고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다. 또한 영어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이외의 공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태는 이병민(2009)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영어마을은 교실 밖이나 숙소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이 영어마을 체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마을에서 영어 사용은 영어 사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나 다른 동료 학생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배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이병민,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개인이 그러한 공간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원어민 강사와 학생들 사이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

4. 영어마을 체험을 통한 태도 및 정의적 변화

연구문제 2번과 관련하여 (1)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나 다른 정의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지, (2) 영어마을 4박5일 체험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영어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정의적 측면

먼저,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80.8% 학생들이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은 25명으로 전체의 약 7.1% 정도였다.

표 16
영어마을 4박 5일 체험 후 부담감 해소

	빈도수	유효 %	누적 %
전혀 아니다	13	3.7	3.7
별로 아니다	12	3.4	7.1
그저 그렇다	42	12.0	19.1
약간 그렇다	53	15.1	34.3
아주 그렇다	230	65.7	100.0

*N=350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예 #5]
면담자: 학생이 다니는 학원과 여기 영어마을이랑 뭐가 달라요?
학생: 아니, 학원에도 선생님이 외국인이지만 평소에 대화를 많이 안 해서 외국인이랑 대화도 하고 모르는 것도 배우려고 왔어요.
면담자: 그래서 좋은 점이 뭔 것 같아?
학생: 외국인이랑 말할 때 좀 자신감이 생겨요.
면담자: 외국인 만날 때? 왜?
학생: 외국인 선생님이랑 대화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럼 학원에서는 외국인 선생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학생: 네. 회화는 거의 안 하구요, 단어랑 받아쓰기 같은 것 해요.
면담자: 그럼 여기서는?
학생: 여기는 회화를 많이 해요.

[인터뷰 예 #12]
면담자: 여기 왔다가 나가면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학생: 모르던 말을 안다.
면담자: 어떤 것?
학생: 모르던 단어 같은걸 배워서 알게 돼요.
면담자: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
학생: 네, 좀 생겨요.
면담자: 그럼 외국인들 보면 막 두렵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
학생: 네. 없어요.

이밖에도 직접적으로 정의적인 측면(예, 태도와 동기)에 초점을 두고 영어마을 체험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15개 문항을 통해 외국인을 접하거나,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부담이나 두려움 또는 거부감이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영어마을을 체험하기 전과 이후에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 결과를 보면 세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표 17
영어마을 학생들의 paired samples t-test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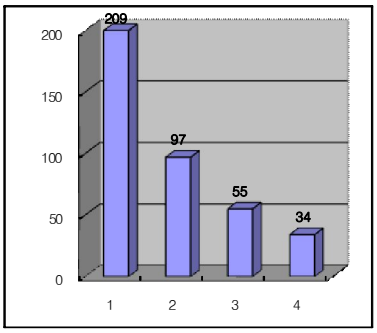
	평균값차이	표준편차	t-value	Sig (2-tailed)
영어 알아듣기 어려움	-.149	1.137	-2.447	.015
영어표현 모르면 대화하지 않음	.115	1.041	2.067	.039
영어시간이 두렵다	.169	1.092	-2.892	.004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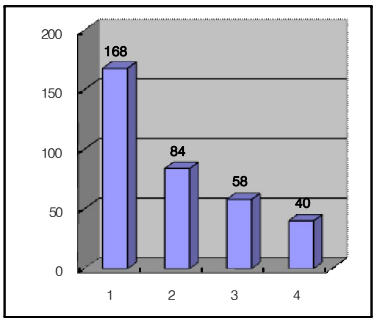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문항 6: 영어대화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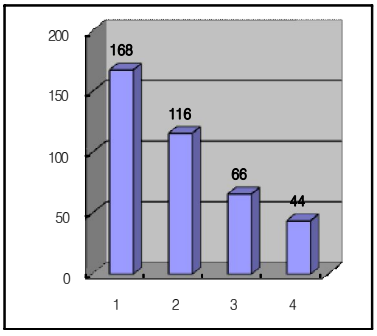
체험 전 (N=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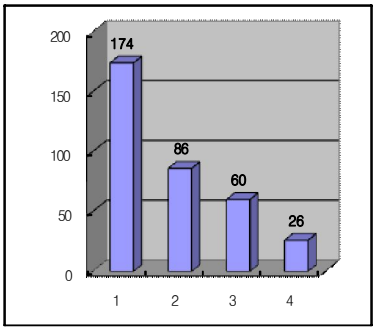
체험 후 (N=350)

도표 2

문항 9: 영어로 된 표현을 모르면 말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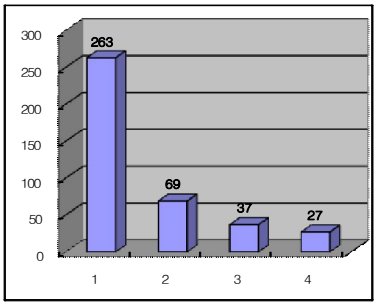
체험 전 (N=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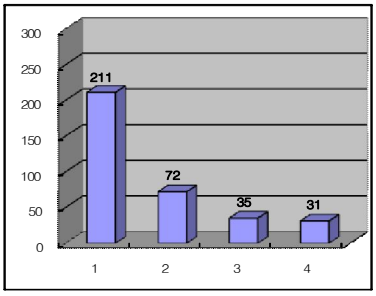
체험 후 (N=346)

도표 3

문항 10번: 영어시간이 두렵다



체험 전 (N=396)



체험 후 (N=349)

1) 아래 도표에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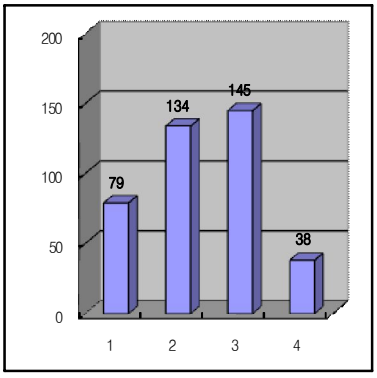
위의 도표를 보면, 6번 문항 '영어대화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의 경우 영어마을 4박5일 체험 이후에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비율이 체험 전 22.5%에서 28%로 증가하여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문항 10번 '영어시간이 두렵다'에 대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체험 전 16%에서 체험 후에는 18.9%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에 문항 9번 '영어로 된 표현을 모르면 말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체험 후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 수의 비율이 체험 전 28%에서 24.8%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영어마을의 실제적인 영어 체험을 통해서 영어에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알아들어야 하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영어로 된 표현을 모를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려는 시도를 해봄으로써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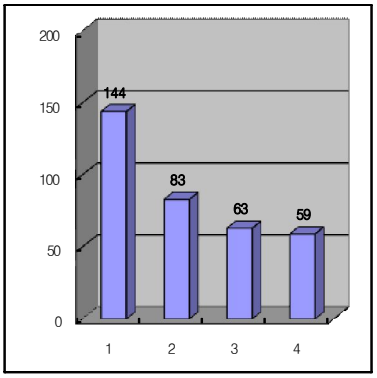
다른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도표 4

문항 1번: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



체험 전 (N=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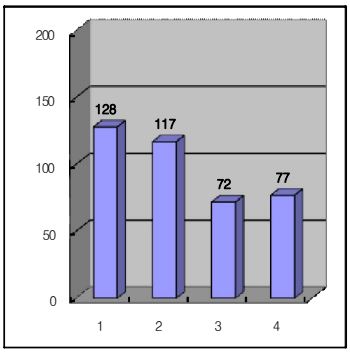


체험 후 (N=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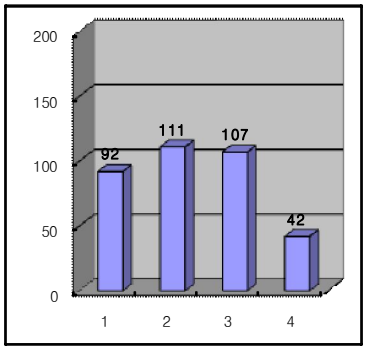
위의 도표를 보면, 1번 문항 '영어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의 경우 영어마을 체험 전과 후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로 답한 학생은 53.8%에서 57.7%로 약 4% 증가했다. '영어를 사용할 때 실수할까 두렵다'에 대한 응답도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학생들이 62%에서 65%로 약간 증가했다.

도표 5

문항 14번: 영어로 말할 때 실수할까 두렵다



체험 전 (N=394)



체험 후 (N=352)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서 영어로 말하거나 영어를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학생 비율이 조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영어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문법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영어로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영어학습 태도의 변화

4박 5일 동안 영어마을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어를 배워보고 사용해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총 13개의 문항 중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영어마을 체험 전후에 7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8

영어마을 Paired t-test 결과

	평균값차이	표준편차	t-value	N	Sig (2-tailed)
영어로 대화	-.162	1.169	-2.582	343	.010
영어방송 시청	-.167	1.195	-2.605	346	.010
영어 영화나 비디오 시청	-.126	1.128	-2.094	346	.037
영어 캠프 참가	-.180	1.082	-3.092	342	.002
가족과 영어 대화	.125	.906	2.559	343	.011
인터넷 정보 검색	-.133	1.204	-2.059	343	.040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영어대화	-.200	1.116	-3.326	344	.001

* $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알아보았다. 표 19를 보면, 4개 문항에서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영어방송을 보고 싶다’, ‘영어 일기를 쓰고 싶다’,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는 문항에서 0.15 이상의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영어 방송을 들어보고 싶다거나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고 활동 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영어학습 태도와 관련된 문항의 기술 통계 및 Effect Size

	영어마을 체험 전		영어마을 체험 후		E.S(*d*)
	평균	S.D	평균	S.D.	
영어로 대화	2.78	1.08	2.94	1.1	-0.15*
영어방송 시청	2.57	1.1	2.74	1.11	-0.15*
영어 영화나 비디오 시청	2.95	1.04	3.08	1.05	-0.12
일기 쓰기	2.74	1.16	2.92	1.16	-0.16*
영어 캠프 참가	3.51	0.8	3.39	0.93	-0.14
인터넷 정보검색	2.78	1.03	2.91	1.08	-0.13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영어대화 대화	2.86	1.1	3.06	1.06	-0.19*

Ⅳ. 결론 및 제언

영어마을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10여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학교 영어교육과의 연계성 등 교육적인 기능이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체험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어마을 체험의 실체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짧은 기간 합숙형태로 이루어지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영어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 단기간의 영어교육 또는 체험을 통해 영어 능력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동기나 태도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면, 단기간의 영어마을 체험이 학생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 영어교육이나 일반 학원의 영어교육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교육 방법, 영어 사용 기회 및 강사들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상당부분 질적인 연구나 관찰을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설문조사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한계

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태도나 동기 변화 및 4박5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가 학교 영어교육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느 정도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영어마을 체험에 대한 설문조사가 마지막 날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영어마을에서 경험한 내용이나 분위기 또는 영어 사용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어마을 체험 이후에 영어에 대한 태도나 관심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영어마을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영어마을 체험이 학생들의 학교 영어 수업이나 영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영어마을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 또는 영어체험이다. 영어마을은 많은 원어민 강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언제든지 일상생활의 수업이나 접촉을 통해서 영어로 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물론 일상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런 조건 때문에, 학교 영어교육 환경과 달리, 일상 공간에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친구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영어 사용과 노출을 질적 및 양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영어마을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이나 영어 강사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영어 소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영어마을 공간에서 학생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자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Excuse me.”, “Mr. ____ I have a question.”, “How can I say this in English?”, “I beg your pardon.”, “Can you say it again?”, “I ca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Where is _____?”외에도 일상에서 꼭 필요한 주요 표현들을 학생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나 교육청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영어체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처음 경험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어마을 체험이 단지 일회성 ‘맛보기’프로그램이 아닌 실제적인 영어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어체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영어마을, 교육청 그리고 다른 영어마을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순환적으로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영어마을 이력제(履歷制)’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영어마을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10년이 지난 영어마을의 역할과 기

능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민지. (2006). 영어 마을의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교과교육, 5*(2), 1-15.

이병민. (2003).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외국어교육, 10*(2). 107-129.

이병민. (2006). *영어마을 5박6일 교육과정의 이론적 재검증 보고서*. (재)경기영어마을.

이병민. (2009). COLT를 통한 영어마을 수업 특성 및 학생과 영어강사의 상호작용 분석. *영어교육, 64*(2), 199-232.

전용준. (2007). 영어마을 실태와 인식조사 및 운영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rnhardt, E. (1992). *Life in language immersion classrooms*.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Limited.

Gardner, R., & Lambert, W.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Gardner, R., & MacIntyre, P. (1992). A student's contribution to second language learning. Part 1: Cognitive variables. *Language Teaching, 25*, 211-220.

Gass, S. M., Mackey, A. & Pica, T. (1998). The role of input and interac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rn Language Journal, 82*, 299-305.

Gass, S., & Varonis, E. M. (1994).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produ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283-302.

Johnson, R. K., & Swain, M. (Eds.). (1997). *Immersion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rdens, P. (1996). Input and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P. Jordens & J. Lalleman (Eds.), *Invest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pp. 407-449). Berlin: Mouton de Gruyter.

Long, M. (1980).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PhD thesi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s.

Loschky, L. (1994). Comprehensible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303-323.

Mackey, A. (1999).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an empirical study of question formation in ESL.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 557-587.

Mackey, A. (2007). *Input, interaction and corrective feedback in L2 lear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ica, T. (1987).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ocial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Applied Linguistics, 7*, 1-25.

Pica, T., & Doughty, C. (1985). The role of group work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 233-248.

Stern, H. H. (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Swain, M., & Lapkin, S. (1998).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wo adolescent French immersion students working together. *Modern Language Journal, 82*, 320-337.

van Lier, L. (1996). *Interaction in the language curriculum: Awareness, autonomy, and authenticity*.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부록

설 문 지

PART 1

_____ 중학교 _____학년 _____반 _____번 이름 _____

1. 성별 : (남 / 여)

2.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방문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	관광	단기 어학연수	6개월~1년 해외거주	1년 이상 해외거주

3. 원어민이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없다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

4.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5. 반에서 자신의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잘 한다	조금 잘 한다	보통이다	조금 못 한다	아주 못 한다

PART 2 : 각 문항을 읽고 번호에 √ 하여 주세요.
(예: 정말 그렇다면 4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번에)

영어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다.	√4	3	2	1

◇ 나는 . . .
(4: 정말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영어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4	3	2	1
영어를 연습하면 잘 할 수 있다.	4	3	2	1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는 능력이다.	4	3	2	1
거리에서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면 두렵다.	4	3	2	1
영어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다.	4	3	2	1
영어 대화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	4	3	2	1
영어 시간이 즐겁다.	4	3	2	1
영어가 안 들리면, 더 이상 듣지 않는다.	4	3	2	1
영어로 된 표현을 모르면 말을 하지 않는다.	4	3	2	1
영어 시간이 두렵다.	4	3	2	1
영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4	3	2	1
영어로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웃을까봐 걱정된다.	4	3	2	1
친구와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	4	3	2	1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할까봐 두렵다.	4	3	2	1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다.	4	3	2	1

◇ 영어를 배워서, . . .
(4: 정말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반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4	3	2	1
영어 방송(아리랑 TV, 미국TV 방송, 미드)을 보고 싶다.	4	3	2	1
영어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싶다.	4	3	2	1
영어 동화책을 읽고 싶다.	4	3	2	1
영어 일기를 써보고 싶다.	4	3	2	1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	4	3	2	1
가족과 영어로 말해보고 싶다.	4	3	2	1
영어 펜팔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4	3	2	1
영어수업 시간에 영어로 대화를 해보고 싶다.	4	3	2	1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	4	3	2	1

인터넷에 있는 영어 정보를 검색해보고 싶다.	4	3	2	1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	4	3	2	1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4	3	2	1

---끝,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설 문 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_____ 초등학교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이름필수)

Part Ⅰ.

◇ 나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 .

(4: 정말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문화를 알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영어권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영어권 국가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외국 여행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영어로 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4	3	2	1
많은 외국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4	3	2	1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가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얻고 싶기 때문에	4	3	2	1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4	3	2	1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4	3	2	1
영어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4	3	2	1
영어를 잘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4	3	2	1
엄마/아빠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4	3	2	1

◇ 영어를 배워서, . . .

(4: 정말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반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해보고 싶다.	4	3	2	1
영어 방송(아리랑 TV, 미국TV 방송, 미드)을 보고 싶다.	4	3	2	1
영어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싶다.	4	3	2	1
영어 동화책을 읽고 싶다.	4	3	2	1
영어 일기를 써보고 싶다.	4	3	2	1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	4	3	2	1
가족과 영어로 말해보고 싶다.	4	3	2	1
영어 펜팔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4	3	2	1
영어수업 시간에 영어로 대화를 해보고 싶다.	4	3	2	1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	4	3	2	1
인터넷에 있는 영어 정보를 검색해보고 싶다.	4	3	2	1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	4	3	2	1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4	3	2	1

◇ 나는 . . .

(4: 정말 그렇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영어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4	3	2	1
영어를 연습하면 잘 할 수 있다.	4	3	2	1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는 능력이다.	4	3	2	1
거리에서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면 두렵다.	4	3	2	1
영어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다.	4	3	2	1
영어 대화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다.	4	3	2	1
영어 시간이 즐겁다.	4	3	2	1
영어가 안 들리면, 더 이상 듣지 않는다.	4	3	2	1
영어로 된 표현을 모르면 말을 하지 않는다.	4	3	2	1
영어 시간이 두렵다.	4	3	2	1
영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4	3	2	1
영어로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웃을까봐 걱정된다.	4	3	2	1
친구와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	4	3	2	1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할까봐 두렵다.	4	3	2	1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다.	4	3	2	1

Part Ⅱ.

◇ 학생이 생각하기에....

(5:아주 그렇다, 4:약간 그렇다, 3:그저 그렇다, 2:별로 아니다, 1:전혀 아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나요?	5	4	3	2	1
영어마을 수업이 학교 영어수업보다 재미있었나요?	5	4	3	2	1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만족하나요?	5	4	3	2	1
영어마을에 또 들어오고 싶나요?	5	4	3	2	1

Part Ⅲ.

(5:아주 그렇다, 4:약간 그렇다, 3:그저 그렇다, 2:별로 아니다, 1:전혀 아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영어 **듣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영어 **쓰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5	4	3	2	1

Part Ⅳ.

(5:아주 그렇다, 4:약간 그렇다, 3:그저 그렇다, 2:별로 아니다, 1:전혀 아니다)

영어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나요?	5	4	3	2	1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나요?	5	4	3	2	1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나요?	5	4	3	2	1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나요?	5	4	3	2	1
원어민 강사 선생님의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5	4	3	2	1

Part Ⅴ.

1.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나요? 대표적인 것 '1개만' 골라 보세요.
① 옆의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② 그냥 포기했다.
③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④ 혼자 추측했다.
⑤ 친구들이 하는 것 보고 그냥 따라했다.

2. 영어를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나요? 대표적인 것 '1개만' 골라 보세요.
① 옆의 친구에게 물어 보았다.
② 그냥 포기했다.
③ 영어 강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④ 손짓 발짓으로 대충 말했다.
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그만 두었다.

3. 영어마을에서 생활하는 동안 영어를 자주 사용했나요?
① 아주 가끔 ② 가끔 ③ 자주 ④ 꽤 자주 ⑤ 거의 대부분

---끝,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7677
이메일: bmlee@snu.ac.kr

Received on June 30, 2010
Reviewed on Oct 25,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22, 2010
Accepted on Dec 3, 2010